

(단위: 억원, %)

세 입					세 출						
구 분	'90예산	'91예산(안)	증 감	증감률	구 분	'90예산		'91예산(안)		증 감	증감률
	금 액	구성비				금 액	구성비				
국 세	219,242	263,346	44,104	20.1	경직성경비	152,248	67.1	178,362	65.6	26,114	17.2
·내국세	158,210	224,893	66,683	42.1	·방위비	68,874	30.4	77,774	28.6	8,900	12.9
·관 세	20,431	25,503	5,072	24.8	·지방재정교부금	21,339	9.4	29,843	11.0	8,504	39.9
·방위세	35,819	12,950	△22,869	△63.8	·교육재정교부금	21,510	9.5	26,537	9.8	5,027	23.4
·교육세	4,782	-	△4,782	-	·인건비	37,117	16.3	40,004	14.7	2,887	7.8
세외수입	7,652	8,479	827	10.8	·예비비	3,408	1.5	4,204	1.5	796	23.4
					기본행정비	3,098	1.4	3,630	1.3	532	17.2
합 계	226,894	271,825	44,931	19.8	사업비	71,548	31.5	89,833	33.1	18,285	25.6
(지방양여세)	()	(19,966)	(19,966)		합 계	226,894	100.0	271,825	100.0	44,931	19.8

<1>

그렇지만 팽창된 예산안이 정부에서 내세운 명분에 걸맞게 짜여 있는 것 같지는 않다. 지방 재정지원금(지방교육재정 포함)은 지방양여세를 합쳐 올해보다 30.5%(1조8천6백1억원)가 증가, 세입세출예산순계 증가율 25.3%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나 특별회계 형태로 지방양여세가 도입돼 내년에도 1조9천9백66억원이 늘어나지만 이와 함께 기능도 이양돼 양여세가 지방재정을 실

정부가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
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크게
늘린 이면에는 정치적 고려가

〈이경 기사〉

다. 그러나, 1993년 2월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1993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총자산 중 외국계 자산의 비중은 4.4%에 불과하다. 이는 1992년 12월 말의 2.6%에 비해 1.8%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, 이 자료는 금융기관에 대한 것이지, 기업에 대한 것은 아니다. 기업에 대한 것은 1993년 1월 1일 현재 1.9%에 불과하다. 이는 1992년 12월 말의 1.6%에 비해 0.3%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, 이 자료는 금융기관에 대한 것이지, 기업에 대한 것은 아니다. 기업에 대한 것은 1993년 1월 1일 현재 1.9%에 불과하다. 이는 1992년 12월 말의 1.6%에 비해 0.3%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중엔 부문간에 서로 융통되는 것도 있고, 기금이 애매하다라도 관련영속성이면 모두 쿨이요아 좋 아 업적 하기는 어렵다. 됐다고 하기는 어렵다.

원천 정부 발표대로 34.9~27.0%가 들어난다 해도 여러가지 사회·경제적 여건을 고려해볼 때 결코 불충한 수준은 되지 못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.

내년에 복지전 비용으로로는 물론다 6천8백42억원이 들이난다. 2조8천3백52억원이 예상되어 있 다.

이 돈으로 내년에 예산민 지 원, 불우계층 지원, 이공분야 학